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한수’가 ‘한 술’ 더 뜨다  
‘한수’ SECRET KEY

2021학년도 한수 파이널 11회 모의고사  
주요 문항 분석지



## #Chapter 1. 오답률 Best 5, “선택지 판단” 집중 분석

[참고] 이 문항들은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은 낯선 문제를 보며 문제 풀이의 감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이라 함은 학생 개별마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것과 대응하기보다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을 얻어가야 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으로 이 분석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답률 예측		해당 문항	
오답률 5위	27%	40번	(독서 : 기술) - 세부 일치
오답률 4위	31%	29번	(독서 : 인문) - 지문의 견해와 <보기>의 견해 비교 분석
오답률 3위	37%	19번	(독서 : 사회)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2위	40%	28번	(독서 : 인문) - 세부 추론
오답률 1위	56%	41번	(독서 : 기술) - 지문 내용과 <보기>의 개념 연결

[문학] 현대시 : 김승희, '배꼽을 위한 연가 5' / 극 : 오승욱 외, '8월의 크리스마스'

[문법] 13번, 14번, 15번

[독서] 기술 지문 : 태양 전지의 발전 원리 (해설 + 분석 자료)

#Chapter 2. '영역 별 주요 지문' 집중 분석 참고

[오답률 5위(27%) 예측] : 독서-기술 40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세부 일치]	
<b>[Killer-Point]</b>	<p><b>40. 윗글의 'P-N 접합 소자'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b></p> <p>① 흡수하는 빛의 파장 대역이 넓을수록 더 많은 전자-양공 쌍이 생성된다.                  ② 퍼텐셜 장벽이 형성되기 전에는 N형의 전자가 접합면 너머로 이동할 수 있다.                  ③ 일정치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빛이 흡수되면 접합면 주위에 형성된 전기장이 사라진다.                  ④ P형에서 생성된 전자가 접합면 너머의 N형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전기 에너지가 생산될 수 없다.                  ⑤ 두 반도체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자를 들뜬상태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빛을 흡수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b>[정답 : ③]</b></p> <p>지문에서 '전기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여기서 '전기장'을 그냥 '장애물' 정도의 느낌으로만 파악하고 넘어갔다면, 2, 3번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기보다 헛갈렸을 수 있다.</p> <p>2번 선지부터 보자.                  지문에 제시된 전기장의 역할은 2가지다.                  1. P형에서 생성된 '전자'와 N형에서 생성된 '양공'이 N과 P에 모이게 하는 역할                  2. P형의 '양공'과 N형의 '전자'가 접합면 너머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의 역할                  그러니까 전기장은 처음에는 전자와 양공이 각각 N과 P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한다. 그리고 N과 P에 전자와 양공이 모이고 나면, 이 전자와 양공들이 N과 P에 모여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장벽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2번 선지의 상황은 '장벽의 역할'을 하는 전기장이 아직 생기지 않을 때를 묻는 것이고, 장벽이 없을 때에는 N형의 (여분의) 전자가 접합면을 넘나들 수 있는 것이므로 적절한 선지이다.</p> <p>다음으로 3번 선지를 보자.                  일정치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빛이 흡수되었을 때 전기장이 사라지면, 전자-양공 쌍이 생성되더라도 N형과 P형에 각각 전자와 양공이 모일 수 없다. 생성된 전자와 양공이 N형과 P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다리'가 사라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N형과 P형에 각각 전자와 양공이 모이지 않으면, 전위차도 발생할 수 없고, 전류의 흐름에 따른 전기 에너지 생산도 불가능해진다.                  혹시 3문단 마지막 문장 'N형 쪽의 전자가 P형 쪽으로 이동'한다는 말 때문에 헛갈렸던 학생들은, 문장을 좀 더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은 전기장을 건너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도선을 통해' 이동하는 것이다. 전기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일정치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빛이 흡수되었을 때 전기장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p>

[오답률 4위(31%) 예측] : 독서-인문 29번 문항

[지문의 견해와 <보기>의 견해 비교 분석]

29. <보기>는 네 명의 학생이 (나)에 제시된 각각의 입장을 취하여 대화한 내용의 일부이다. (나)를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갑**: '선'이 무엇인지는 굳이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약자를 돕는 것은 분명히 선한 행동이야.
- **을**: 그 말은 단지 약자를 보고 느끼는 안타까움을 표출한 것이라고 생각해. 감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그런 행동이 꼭 선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 **병**: 갑의 말은 우리 사회에서 '선'이 이타성이라는 관습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물론 우리 사회에서 '선'이 실제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지는 좀 더 조사해 봐야 할 거야.
- **정**: 을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해. 하지만 갑이 어떤 근거로 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합리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는 있을 거야.

[Killer-Point]

- ① '갑'과 '병'은 도덕 판단의 진위를 가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겠군.
- ② '을'과 '정'은 도덕 판단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다르겠군.
- ③ '갑'은 '병'이 도덕 판단에는 사실적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도덕적 속성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겠군.
- ④ '을'은 '갑'이 도덕 판단과 사실 판단을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직관적 이해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정한다고 비판하겠군.
- ⑤ '정'은 '병'이 판단 주체의 평가적 태도가 도덕 판단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도덕 판단의 진위를 가릴 수 있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린다고 생각하겠군.

[정답 : ④]

발문에서 (나)에 제시된 '각각의 입장을 취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갑~정'은 (나)에 제시된 자연주의, 직관주의, 정서주의, 보편적 처방주의에 하나씩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읽으면서 어디에 대응되는지 파악하면 된다. 만약에 말을 많이 바꾸거나 풀어서 썼다면 어려웠을 수 있겠으나, 지문에서 제시한 키워드를 거의 그대로 <보기>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만 않으면 연결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갑' : '선'은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다. ⇨ 직관주의

'을' : 그건 안타까움(정서)의 표출일 뿐이다. ⇨ 정서주의

'병' : '선'이 이타성이라는 '관습적 의미'를 가진다. ⇨ 자연주의

'정' : 도덕 판단의 '근거'에 대해 '합리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다. ⇨ 처방주의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다면 1~3번 선지까지는 어렵지 않게 지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4번 선지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웠을 수 있다. 확인해야되는 지점이 2개이기 때문이다.

정서주의는 도덕 판단은 자연 과학과 달리 그 진위를 가릴 수 없다고 본다. 즉 정서주의는 사실 판단과 도덕 판단을 구분하는 것이다.

직관주의 역시 도덕 판단에는 사실적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도덕적 속성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직관주의 역시 도덕 판단과 사실 판단을 구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옳'은 '값'이 도덕 판단과 사실 판단을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직관적 이해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정한다고 비판하겠군'이라는 진술은 적절치 않다. '값(직관주의)'은 직관적 이해에 대해 합리적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정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직관적 이해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직관적 이해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개인마다 선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다른 경우에 어떤 이해를 합리적 근거에 따라 우선시해야 하는가라는 난점에 봉착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직관 자체는 '논리적 추론(=합리적 논의)'이 아닌 것이므로, 직관주의는 직관적 이해에 대해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 [유사 평가원 기출] - 2016학년도 6월 모평 A형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 이렇게 구체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규범 윤리학이라면, 옳음의 의미 문제, 도덕적 진리의 존재 문제 등과 같이 규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원칙에 대해 다루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메타 윤리학에서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는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과 도덕적 진리의 존재 여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도덕 실재론에서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를 과학적 판단 및 과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로 본다. 즉 과학적 판단이 '참' 또는 '거짓'을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고 이때 참으로 판정된 명제를 과학적 진리라고 부르는 것처럼,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고 참으로 판정된 명제가 곧 도덕적 진리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덕 실재론에서 주장하듯, '도둑질은 옳지 않다'가 도덕적 진리라면, 그것이 참임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성질을 도둑질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정서주의에서는 어떤 도덕적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옳음이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성질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되는 명제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정서주의에서는 '옳다' 혹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만 도덕 실재론과 달리 과학적 진리와 같은 도덕적 진리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렇다면 정서주의에서는 옳음이나 옳지 않음의 의미를 무엇으로 볼까? 도둑질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곧 옳음과 옳지 않음이라고 한다. 즉 '도둑질은 옳다'는 판단은 도둑질에 대한 승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도둑질은 옳지 않다'는 판단은 도둑질에 대한 부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정서주의에서는 도덕적 판단이 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도덕 실재론보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를 설명할 때 도덕적 판단이 나타내는 승인 감정 또는 부인 감정이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승인 감정은 어떤 행위를 좋다고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일어나길 욕망하는 것이기에 결국 그것을 해야 한다는 동기 부여까지 직접 연결된다는 것이다. 부인 감정도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이에 비해 도덕 실재론에서는 도덕적 판단 이외에도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컨대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에 덧붙여 '사람들은 약자가 어려운 처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와 같이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대한 법칙을 추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도덕 실재론에서는 약자를 돕는 윤리적 행위를 해야겠다는 동기 부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대한 법칙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 없이도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를 설명할 수 있는 정서주의는 도덕 실재론에 비해 높이 평가된다.

또한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승인 감정과 부인 감정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정서주의에 따르면 사람들 간의 도덕적 판단의 차이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서로 합의하지 못하는 의견 차이에 대해서도 굳이 어느 한 쪽 의견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서로 감정과 태도가 다

를 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은 도덕적 판단의 차이로 인한 극단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옳음과 옳지 않음을 감정과 동일시하는 정서주의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감정이 변할 때마다 도덕적 판단도 변한다고 해야 하지만, 도덕적 판단은 수시로 바뀌지 않는다. 둘째, 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 변할 수 있지만 도덕적 판단은 뚜렷한 근거 없이 바뀔 수 없다. 셋째, 감정이 없다면 '도덕적으로 옳음'과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도 없다고 해야 하지만, '도덕적으로 옳음'과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보편적 인식과 배치된다.

## 25.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A는 정서주의자이고, B는 도덕 실재론자이다. 두 사람은 모두 '옳음'과 '옳지 않음'이 각각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음'에 대응한다고 본다. 또한 다음 두 예술적 판단에 대해, A는 도덕적 판단에 대한 정서주의의 설명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B는 도덕적 판단에 대한 도덕 실재론의 설명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ㄱ) 예술작품 △△는 아름답다.

(ㄴ) 예술작품 △△는 아름답지 않다.

- ① A와 B는 모두 예술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군.
- ② A는 '아름다움'이라는 성질이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생각하겠군.
- ③ A는 (ㄱ)과 (ㄴ) 중 하나는 '참'인 명제라고 생각하겠군.
- ④ B는 (ㄱ)과 (ㄴ) 중 하나는 '거짓'인 명제라고 생각하겠군.
- ⑤ B는 (ㄱ)과 (ㄴ)은 모두 예술작품 △△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표현한다고 생각하겠군.

[정답 : ④]

[오답률 3위(약 37%) 예측] : 독서-사회 19번 문항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19.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견해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기 > —————

(가) 건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위반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법원이 그 시정명령을 당연무효는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시정명령위반죄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나)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그 행정처분이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는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운전을 하였다면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Killer-Point]

- ① (가)는 법적 안정성을 매우 중시하는 학자들의 입장과 부합하는 주장이겠군.
- ② (가)는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주장이겠군.
- ③ (가)는 형사처벌이 관련된 경우에는 공정력을 완화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에 배치되는군.
- ④ (나)는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는 공정력을 강화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에 부합하겠군.
- ⑤ (나)는 타인의 생명과 직결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더라도 공정력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겠군.

[정답 : ④]

지문의 내용을 봐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 즉 '예외'에 대한 내용이 많이 제시되었다. 법 지문에서는 '원칙'과 '예외'를 함께 제시해주는 경우가 많고, 규정이든 견해든 예외가 제시된 경우에는 문제에서 거의 반드시 물어본다고 생각해도 된다.

법 지문을 많이 본 학생들은 지문에서 예외 상황이 제시될 때 집중력을 높여서 읽었을 것이고, 지문의 가장 마지막에 나온 예외 상황에 대한 내용이 (나)에서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정답 선지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

취소소송에서 소송 제기자가 승소하면 처분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은, 판결 이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무효 판결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시점부터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분의 효력이 무효가 된다. 그러면 (나)에서 운전자가 운전을 한 시점(처분 이후, 소송 이전)에도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은 무효가 될 테니,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가 아닌 것이 된다.

그런데도 (나)는 '행정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처분의 효력이 상대방에게 구속력을 행사하는 것', 즉 '공정력'(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여 그를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면허취소처분처럼 타인의 생명과 직결된 행정처분은, 설사 그것이 취소되더라도 공정력을 인정하자는 것이므로, 5문단 마지막에 제시된 '소수 의견'에 해당하는 견해이다.

[유사한 평가원 사례] - 2016학년도 수능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부른다.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 간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하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 또는 (나)의 경우가 생겼다고 하자.

(가) 갑은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① (가)의 경우, 갑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 ② (가)의 경우, 갑은 빌려 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 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나)의 경우, 을은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 ④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⑤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 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정답 : ⑤]

[오답률 2위(약 40%) 예측] : 독서-인문 28번 문항

<b>[세부 추론]</b>	
<b>[Killer-Point]</b>	<p><b>28. (나)를 바탕으로 (가)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b></p> <p>① 직관주의에 따르면, ㉠은 선을 사실적 속성을 통해 정의하려는 불가능한 시도를 한 입장이다.</p> <p>② 정서주의에 따르면, ㉠은 인간 사회에서 쾌락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한 호의의 감정을 표명한 입장이다.</p> <p>③ 보편적 처방주의에 따르면, ㉠은 모든 사람에게 인간 사회에서 고통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하는 입장이다.</p> <p>④ 자연주의에 따르면, ㉠은 어떤 행위가 인간 사회에서 쾌락의 총량을 늘렸다는 것이 검증되어야만 그것을 도덕적 선으로 간주하는 입장이다.</p> <p>⑤ 보편적 처방주의에 따르면, ㉠은 인간이 언제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본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도덕 판단의 근거로 내세운 입장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b>[정답 : ④]</b></p>
	<p>4번 선지에서 요구하는 사고의 흐름이 낯설게 느껴졌을 수 있다. 4번 선지가 왜 틀렸는지, 정확히 판단해서 답을 고른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1~5번 선지를 지워서 답을 고른 학생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본다.</p> <p>자연주의는 '선'의 사실적 속성이 파악되었다면, 이를 충족하는 행위를 선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공리주의'는 인간 사회에서 쾌락의 총량을 늘리는 행위를 도덕적 선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공리주의' 입장에서 '선'의 사실적 속성은 '쾌락의 총량을 늘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맞다.</p> <p>다만 공리주의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가 실제로 인간 사회의 쾌락의 총량을 늘렸는지를 '검증'한 이후에야 도덕적 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내용은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아마 4번 선지를 고른 대부분의 학생들도 '검증을 거친 판단'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4번 선지를 골랐을 것이다.</p> <p>지문에 따르면 공리주의는 쾌락이라는 도덕적 기준을 제시한 것뿐이며, 쾌락을 총량을 늘렸다는 것이 검증된 이후에야 도덕적 선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다른 층위의 논의가 된다.</p> <p>어떤 행위가 '선'의 '사실적 속성'을 가졌는지 경험적으로 조사(검증)한 후에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메타 윤리학'에 속하는 '자연주의'의 주장에 해당한다.</p>
<b>[유사한 평가원 사례] - 2011학년도 9월 모평</b>	
<p>전통적 공리주의는 세 가지 요소에 기초하여 성립하는 대표적 윤리 이론이다. 첫째, 공리주의는 행동의 윤리적 가치가 행동의 결과에 의존한다는 결과주의이다. 행동은 전적으로 예상 되는 결과에 의해서 선하거나 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행동의 결과를 평가할 때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행동의 결과가 산출할, 계산 가능한 '행복의 양'이다. 이에 따르면 불행과 대비하여 행복의 양을 많이 산출할수록 선한 행동이 되며, 가장 선한 행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것이다. 셋째, 행동을 하기 전 발생할 행복의 양을 계산할 때 개개인의 행복을 모두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어느 누구의 행복도 다른 누구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두 사람의 행복을 비교할 때 오로지 그 둘에게 산출될 행복의 양들만을 고려한다. 이는 공리주의가 전형적인 공평주의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p> <p>이러한 공리주의에 대하여 반공리주의자가 제기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리주의가 때때로 정의의 개념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는 위의 세 요소들을 실천하는 공리주의자인 민우가 집단 A와 집단 B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를 방문했다고 가정한다. 민우는 집단 A의 한 사람이 집</p>	

단 B의 한 사람을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민우가 만약 진실을 증언하면 두 집단의 갈등을 더 악화시켜 유혈 사태를 양기할 수 있지만, 집단 B의 무고한 한 사람을 지목하여 거짓 증언을 하면 집단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 증언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불확실성은 더 위험하다. 이 상황에서 전통적 공리주의자인 민우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정의 배제 상황에 대한 공리주의자들의 몇 가지 대응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하나는 공리주의 또한 정의의 개념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을 증언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를 먼저 가정하고 과연 어느 사회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하는 사회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자의 사회가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하기 때문에 좋은 사회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래서 행복을 더 많이 산출하는 진실을 증언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규칙을 만들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개인의 행동을 제약한다. 이와 같은 대응을 하는 공리주의자들을 규칙 공리주의자라고 한다.

**46. [A]의 규칙 공리주의자와 <보기>의 의무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의무론자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때 좋은 결과가 산출되어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조건 없이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규칙이기 때문이다.

- ① 규칙 공리주의자는 규칙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했어.
- ② 의무론자는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어.
- ③ 의무론자와 규칙 공리주의자는 모두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④ 의무론자는 규칙의 절대성을, 규칙 공리주의자는 정의의 배제를 강조했다.
- ⑤ 의무론자는 결과와 무관하게, 규칙 공리주의자는 결과에 의존하여 정의를 강조했다.

[정답 : ⑤]

[오답률 1위(약 56%) 예측] : 독서-기술 41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과 <보기>의 개념 연결]	
[Killer-Point]	<p><b>41. 밑글과 &lt;보기&gt;를 함께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 보 기 &gt;</p> <p>특정 반도체 소재로 P-N 접합 소자를 만든 태양 전지의 실제 성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는 필 팩터이다. 필 팩터는 표준 조건에서 태양 전지가 생산하는 최대 전기 에너지를 측정하여 이 값을 개방 전압과 단락 전류의 곱으로 나눈 값이다. 표준 조건에서 개방 전압과 단락 전류를 각각 측정하여 서로 곱한 값은 해당 태양 전지가 생산할 수 있는 이론상 최대 전기 에너지로, 소자의 밴드 갭 에너지에 의해 결정되며 밴드 갭 에너지가 1.4eV인 경우에 최댓값을 가진다. 이때 개방 전압은 밴드 갭 에너지에 비례하고 단락 전류는 밴드 갭 에너지에 반비례한다.</p> </div> <p>① 표준 조건에서 계측된 태양 전지의 필 팩터는 언제나 1보다 작은 값이겠군.                  ② 표준 조건에서 실리콘 계열의 태양 전지의 필 팩터가 0.8로 계측되었다면, 이 전지의 에너지 변환 효율은 약 24%이겠군.                  ③ 표준 조건에서, 실리콘 계열의 태양 전지의 개방 전압은 밴드 갭 에너지가 1.4eV인 태양 전지의 개방 전압보다 낮게 측정되겠군.                  ④ 표준 조건에서, 실리콘 계열의 태양 전지의 필 팩터가 밴드 갭 에너지가 1.4eV인 태양 전지의 필 팩터보다 더 높게 계측되었다면, 전자가 후자보다 더 넓은 파장 대역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이겠군.                  ⑤ 표준 조건에서, 실리콘 계열의 태양 전지의 필 팩터와 밴드 갭 에너지가 1.4eV인 태양 전지의 필 팩터가 동일하게 계측되었다면, 전자에서 실제로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가 후자의 경우보다 더 작겠군.</p> <p style="text-align: right;"><b>[정답 : ④]</b></p> <p>4번 선지의 판단도 쉽지 않지만, 2번 선지에서 흔들린 학생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만큼 2번 선지의 판단이 어렵다. 차라리 2번 선지의 판단을 포기하고 밑의 선지들을 봤다면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p> <p>2번 선지부터 판단해보자.</p> <p>태양 전지의 에너지 변환 효율은 메모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생성된 전기 E / 입사된 빛 E</p> <p>지문에 따르면 실리콘 전지의 이론상 최대 에너지 변환 효율은 약 0.3이다. 즉 입사된 빛 에너지 대비 생성된 전기 에너지가 30%일 때 최대 에너지 변환 효율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입사된 빛 에너지를 a라고 놓았을 때 0.3a가 이론상 최대 효율로 생성된 전기 에너지가 된다.</p> <p>그런데 이 이론상 최대 전기 에너지는 다시 '필 팩터'의 분모가 될 수 있다. 2번 선지에서 필 팩터의 값이 0.8이라고 하였으므로,</p> <p style="text-align: center;">생산한 최대 전기 에너지 / 이론상 최대 전기 에너지(=0.3a) = 0.8</p> <p>와 같이 정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 태양 전지가 생산한 최대 전기 에너지는 0.24a가 된다. 생산된 전기 에너지가 0.24a라는 것은 입사된 빛 에너지(=a)의 24%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었다는 뜻이므로, 이 전지의 에너지 변환 효율은 약 24%라고 할 수 있다.</p>

다음으로 4번 선지를 보자.

지문에서 '밴드 갭 에너지'와 '파장 대역'은 반비례 관계라고 하였다. 따라서 더 넓은 파장 대역의 빛을 흡수한다는 것은 더 작은 밴드 갭 에너지를 가진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4번 선지는 더 작은 밴드 갭 에너지를 가질 때 필 팩터가 높아진다는 것이 된다. 이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필 팩터의 값과 밴드 갭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보기>를 보면 밴드 갭 에너지는 개방전압과는 비례 관계, 단락 전류와는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밴드 갭 에너지가 작아질 때 개방전압과 단락 전류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 된다. 이렇게 되면 분모를 구성하는 두 값 중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작아지는 꼴이므로, 그 값이 반드시 작아진다고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필 팩터의 값이 크게 나온 이유를 밴드 갭 에너지가 더 작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 [유사한 사례] - 2014년도 4월 학평 A

염분차 발전이란 해수와 담수의 염분 농도 차이를 통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로서, 대표적인 방법으로 역전기투석 발전이 있다. 이 방식은 전기를 이용해 염분을 제거하여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전기투석의 원리를 역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전기투석 발전기의 기본 구조는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음이온 교환막과 양이온 교환막이 여러 장 번갈아 설치된 형태이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전기 에너지가 생산된다.

먼저 가느다란 기공(구멍)이 뚫려 있는 교환막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해수를, 다른 한쪽은 담수를 흐르게 하면 농도 차에 의해 해수에 있는 나트륨 이온( $\text{Na}^+$ )과 염화 이온( $\text{Cl}^-$ )은 교환막의 기공을 통해 담수 쪽으로 확산하려고 한다. 이때 농도 차가 클수록 이동하려는 이온의 양은 늘어난다. 그런데 양이온 교환막의 기공에는 음전하를 지닌 작용기\*를 여러 개 설치하여 나트륨 이온만을 교환막의 기공으로 끌어들이고, 음이온 교환막의 기공에는 양전하를 지닌 작용기를 여러 개 설치하여 염화 이온만을 교환막의 기공으로 끌어들이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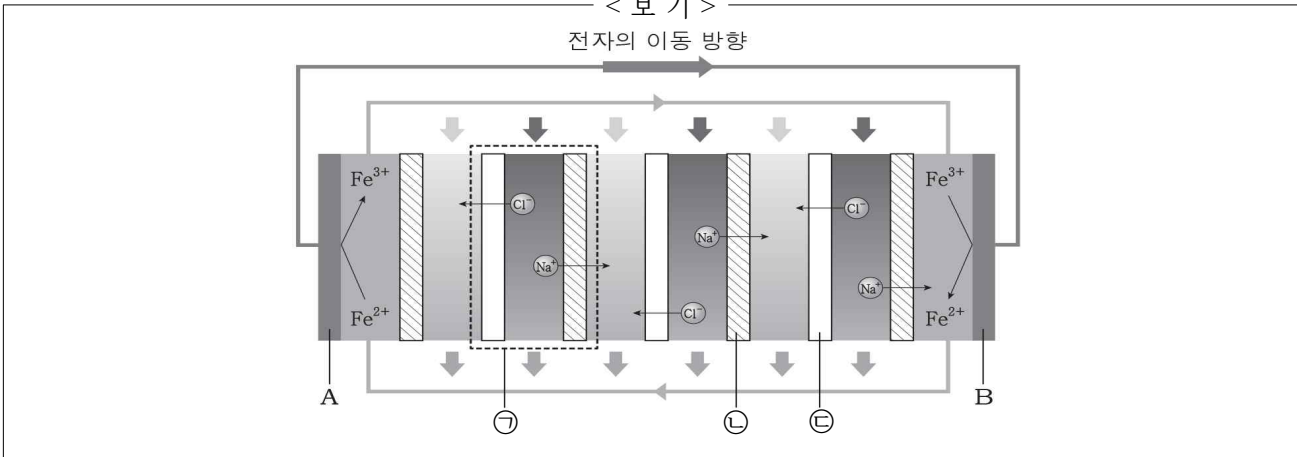
이때 기공 내에 들어온 이온은 일단 한 작용기에 결합하지만 담수 쪽으로 확산하려는 힘에 의해 다시 떨어져다가 다음 작용기에 재결합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 과정을 거쳐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 교환막을 통하여, 음이온인 염화 이온은 음이온 교환막을 통하여 해수에서 담수로 이동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담수에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하게 되어, 양이온 교환막을 경계로 나트륨 이온의 농도 차가, 음이온 교환막을 경계로 염화 이온의 농도 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온의 농도 차는 전기적 불균형 상태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교환막을 사이에 두고 전위차, 즉 전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양이온 교환막과 음이온 교환막 한 쌍을 셀(cell)이라고 하는데, 두 교환막이 각각 전압을 띠고 있고, 그 사이에는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전해질\*이 흐르고 있으므로 셀은 전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전극 사이에 셀을 여러 장 배열할수록 높은 전압을 얻게 되는데, 이는 전지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시킨 효과와 같다. 또한 각 셀에서 발생한 전압은 모두 합쳐지게 되므로, 양 끝에 위치한 두 전극 사이에는 높은 전위차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두 전극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하면 전자가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배열된 셀들의 양 끝에 위치한 전극에 전위차가 생기더라도 두 극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없으므로 전자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 교환막에서 염화 이온이 이동하는 방향의 끝에 위치한 전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반대의 전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성을 활용하여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나는 전극에 철 2가( $\text{Fe}^{2+}$ ) 이온을 흘려주면 그 이온은 전극에 전자를 넘겨 주고 철 3가( $\text{Fe}^{3+}$ ) 이온이 되고, 통로를 통해 반대 전극으로 이동한 후 다시 전자를 넘겨 받아 철 2가( $\text{Fe}^{2+}$ ) 이온이 된다. 이와 같이 두 전극을 통해 전자를 넘겨 주고 넘겨 받는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전자는 활발하게 이동하게 되고, 따라서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 작용기: 분해되지 않고 마치 한 원자처럼 행동하는 원자들의 덩어리로 화합물의 성질을 결정함.
- \* 전해질: 전기를 통하게 하는 물질.
- \* 산화-환원 반응: 산화란 전자를 넘겨 주는 것을, 환원이란 전자를 넘겨 받는 것을 의미함

29.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 ㉣을 분석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전극 사이의 전위차는 커진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의 기공에 양전하를 지닌 작용기를 설치한다면 막을 통과하는 이온의 종류도 달라지겠군.
- ③ ㉢을 경계로 해수와 담수의 농도 차가 클수록 담수 쪽으로 이동하려는 이온의 양은 많아지겠군.
- ④ ㉣의 기공에 작용기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이온의 확산은 이루어지지 못하겠군.
- ⑤ ㉢과 ㉣에 기공이 없다면 교환막을 사이에 두고 전기적 불균형은 발생하지 않겠군.

[정답 : ④]

##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① 문법

[참고] 문법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자신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3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 [음운의 변동]

## 음운 변동의 유형

- ① 교체 :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 $A+B \rightarrow A+C$ ) 음운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0)
- ② 탈락 :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음운 변동 ( $A+B \rightarrow A$ ) 음운 개수가 하나 준다.(-1)
- ③ 첨가 :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음운 변동 ( $A+B \rightarrow A+'C'+B$ ) 음운 개수가 하나 늘다.(+1)
- ④ 축약 :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음운 변동 ( $A+B \rightarrow C$ ) 음운 개수가 하나 준다.(-1)

## 1. 음절 끝소리 규칙 : 받침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 어말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앞 : 음절 끝소리가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받음.
-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 : 음절 끝소리가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고 연음.

받침	대표음	예시
ㄱ, ㅋ, ㆁ	ㄱ	국[국], 밖[밖], 부엌[부엌]
ㄴ	ㄴ	소원[소원]
ㄷ, ㅌ, ㅊ, ㅍ, ㅌ, ㅍ, ㅎ	ㄷ	날, 날, 낮, 낮, 낮, 낮, 낮 → [날]
ㄹ	ㄹ	말[말], 발[발]
ㅁ	ㅁ	감[감]
ㅂ, ㅍ	ㅂ	입, 앞 → [입]
ㅇ	ㅇ	강[강]

## [더 알아보기] 연음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실현 양상

- ①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예) 늪 앞[늪ㅏ], 발 아래[바다래], 부엌 안[부어간] 꽃 위[꼬뒤]
- ②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앞말의 자음을 뒤 음절 첫소리로 그대로 옮겨 발음한다.
  - 예) 곁에[거테], 꽃을[꼬츨]
- ③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에는 겹받침 중 뒤의 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단, 겹받침이 ‘ㄱ, ㄴ, ㅂ’인 경우, ‘ㅅ’을 연음하되 된소리[ㅆ]으로 발음한다.
  - 예) 닭을[달글], 삼아[살마], 값을[갑쓸], 외곶으로[외곶쓰로]







**정답해설** 답은 ⑤야. 먼저 ‘꽃하다’에서는 앞 음절 종성의 ‘ㄷ’과 뒤 음절 초성의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ㅌ’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서 [꼬치다]가 돼. 즉, ‘ㅎ’이 축약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지. 다음으로, ‘술하다’에서는 먼저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술하다’가 된 후, 앞 음절 종성의 ‘ㄷ’과 뒤 음절 초성의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ㅌ’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서 [수타다]가 돼. 즉, ‘ㅎ’이 축약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으며 ‘ㅎ’이 탈락되는 음운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어.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쌍느’에서는 우선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쌍느’가 돼. 그 후, 앞 음절 종성의 파열음 ‘ㄷ’과 뒤 음절 초성의 비음 ‘ㄴ’이 만나서 ‘ㄷ’이 비음 ‘ㄴ’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서 [쌍느]가 되지. 즉, ‘쌍느[쌍느]’에서는 ‘ㅎ’이 ‘ㄷ’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어.

②를 살펴보자. ‘얹지’에서는 앞 음절 종성의 ‘ㅎ’과 뒤 음절 초성의 ‘ㄱ’이 만나 거센소리 ‘ㅋ’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서 [얹지]가 돼. 즉, ‘ㅎ’이 축약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어.

③을 살펴보자. 먼저 ‘싫어’에서는 어간의 종성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어미 ‘어’가 와. 그렇다면 ‘ㅎ 탈락’이 일어나서 ‘싫어’가 된 후, 연음이 일어나서 [시러]가 돼. 다음으로 ‘일느’에서는 종성 ‘ㅎ’ 다음에 자음이 오고 있어. 그리고 ‘ㅎ’은 겹받침, 즉 자음군의 일부야. 그렇다면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일느’가 된 후, 앞 음절 종성의 유음 ‘ㄹ’과 뒤 음절 초성의 비음 ‘ㄴ’이 만나서 ‘ㄴ’이 유음 ‘ㄹ’이 되는 유음화가 일어나. 그 결과, [일르]로 발음 돼. 즉, ‘싫어[시러]’에서는 ‘ㅎ탈락’, ‘일느[일르]’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ㅎ’이 모두 탈락하는 음운의 변동이 일어났어.

④를 살펴보자. 먼저, ‘짙느’에서는 우선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짙느’가 된 후, 앞 음절 종성의 파열음 ‘ㄷ’과 뒤 음절 초성의 비음 ‘ㄴ’이 만나서 ‘ㄷ’이 ‘ㄴ’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그 결과, [짙느]로 발음 돼. 다음으로 ‘놓느’에서는 우선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놓느’가 된 후, 앞 음절 종성의 파열음 ‘ㄷ’과 뒤 음절 초성의 비음 ‘ㄴ’이 만나서 ‘ㄷ’이 ‘ㄴ’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그 결과, [논느]로 발음 돼. 즉, 두 경우 모두 ‘ㅎ’이 ‘ㄷ’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어.

**[14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대명사]**

1. 지시대명사 : 사물 및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

근칭	중칭	원칭	미지칭
이것	그것	저것	무엇
여기	거기	저기	어디
이곳	그곳	저곳	

2. 인칭대명사 :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단수	복수	
1인칭	나, 저	우리, 저희	
2인칭	너, 자네, 당신, 그대		너희
3인칭	근칭	중칭	원칭
	이이, 이분	그, 그이, 그분	저이, 저분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
	누군	아무	저, 저희, 자기, 당신

**[참고] 미지칭과 부정칭의 구분**

- 미지칭 : 무엇인지 정확히 모를 때 쓰는 대명사 예) 누구세요? / 저 분은 누구십니까?
- 부정칭 : 특정한 지시 대상이 없을 때 예) 아직 아무도 안 왔다.

[선택지 해설]

14. ①

정답해설 답은 ①이야. 자, 이것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가자. 미지칭 대명사는 어떤 대상을 ‘모를 때’, 부정칭 대명사는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 대상을 이야기할 때’ 사용 돼. 예를 들어, ‘(새로운 얼굴을 보고) 저 아이는 누구니?’할 때, ‘누구’는 모르는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미지칭 대명사에 해당해. 반면, ‘누구든지 내 생일 파티에 와!’에서 ‘누구’는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칭 대명사에 해당해.

그럼 먼저, ㉠의 ‘뭐를 그렇게 찾아?’에서 ‘뭐’는 정수가 찾는 어떤 사물인데, 진희가 모르는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지칭 대명사’에 해당해. 다음으로, ㉡의 ‘어디에 뒀었는데?’에서 ‘어디’도 정수가 필통을 둔 어떤 장소인데, 진희가 모르는 장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미지칭 대명사’에 해당해. ㉢의 ‘가져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의 ‘아무’는 모르는 누군가라기보다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칭 대명사’에 해당해. ㉣의 ‘누구든 분실물을 발견하면’에서 ‘누구’도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칭 대명사’에 해당하지. 마지막으로 ㉤의 ‘난 배가 고파서 매점에서 뭐 좀 먹고 가려고’에서 ‘뭐’도 정해지지 않은 아무 음식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정칭 대명사’에 해당해. 정리하면 ㉠, ㉡는 미지칭 대명사, ㉢, ㉣, ㉤는 부정칭 대명사에 해당해.

[15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1. 중세의 관형격조사

형태	환경	예시
스	높임 유정 명사, 무정 명사 뒤	부터 + 스, 나라 + 스
익	평칭의 유정 명사 뒤	물 + 익
의	- ‘익/의’의 교체는 모음조화에 따라 결정된다.	崔九(최구) + 의

2. 중세의 높임법

(1) 주체 높임법 :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사용

현대 국어	중세 국어	예시
-시- / -으시-	-시-(자음 어미 앞)	가시고, 가시니
	-샤-(모음 어미 앞)	낙샤 (늘- + -으샤- + -아)

- 중세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는 선어말 어미 ‘-거-’, ‘-더-’ 뒤에 놓이기도 한다.

예) ㅎ더시다 (vs 현대 : 하시더라), ㅎ거시늘

(1) 객체 높임법 :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사용

현대 국어	중세 국어	예시
선어말 어미 없이 특수 어휘로 실현	-습/습- (어간의 끝소리 ㄱ, ㅂ, ㅅ, ㅎ 뒤)	막습거늘 돕스븐니
	-줍/줍- (어간의 끝소리 ㄷ, ㅌ, ㅈ, ㅊ 뒤)	듣줍게 얻즌반
	-습/습- (어간의 끝소리 유성음 뒤)	보습게 꺾초스반

- 후행 어미가 자음이면 ‘-습/줍/습-’, 후행 어미가 모음이면 ‘-습/줍/습-’

## [선택지 해설]

## 15. ㉓

**정답해설** 답은 ㉓이야.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학습 활동의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해. 첫째, 주체 높임이란 문장의 서술어의 주체인 주어를 높이는 것으로, 중세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으)시/(으)샤’로 실현 돼. 이때, ‘-(으)시’는 자음 앞에서, ‘-(으)샤’는 모음 앞에서 사용 돼. 둘째, 객체 높임이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로 실현되는 객체를 높이는 것으로, 중세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습-/습’, ‘-줍-/줍’, ‘-습-/습’로 실현 돼. 셋째, 중세에서는 평칭의 유정 명사 뒤에서는 모음조화에 따라 관형격조사 ‘이/의’를 사용했어. 예를 들어, ‘아랴와 같이 양성 모음(·, ㅏ, ㅑ)을 가지고 있는 유정 명사 뒤에는 관형격 조사 ‘이’를, ‘철수’와 같이 음성모음(ㅡ, ㅣ, ㅓ)을 가지고 있는 유정 명사 뒤에는 관형격 조사 ‘의’를 사용했어. 반면, 무정명사나 높임의 유정 명사 뒤에는 관형격조사 ‘시’를 사용했어. 예를 들어, 무정 명사 ‘의자’나 높임의 유정 명사 ‘부텨’ 뒤에는 ‘시’이 왔지.

그럼 이제 ㉑, ㉒, ㉔을 살펴보자. 먼저, ㉑의 ‘물으시되’는 전체 문장이 ‘태자께서 물으시되’야. 여기서 높여야 할 대상은 문장의 주체인 ‘태자’이며, 이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했어. 그럼 중세에도 똑같이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를 사용해 주면 돼. 그래서 ‘무르샤되’가 답이 돼. 참고로, ‘무르샤되’는 분석하면 ‘물- + -(으)샤 + -오되’야.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오되’ 앞에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위치하기 때문에 형태가 ‘-(으)샤’로 실현되었어. 다음으로, ㉒의 ‘대답하되’는 전체 문장이 ‘사문이 태자께 대답하되’야. 여기서 높여야 할 대상은 문장의 부사어이자 객체인 ‘태자’야. 중세에서는 문장의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를 사용해. 자, 현대의 ‘대답하다’는 중세 때 ‘對答하다’이며, 이때 어간은 ‘對答하’지. 이 뒤에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올 거야. 어간이 모음으로 끝날 때는 뒤에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습-/습’이 오며, 그렇기 때문에 ‘對答하습보되’가 중세국어에서 사용될 거야. 참고로, ‘對答하습보되’는 분석하면 ‘對答하- + -습- + -오되’야. 이때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말어미가 와서 ‘-습’의 형태로 실현되었어. 마지막으로 ㉔의 ‘부처의’에서 ‘부처’는 높임의 유정 명사야. 그러므로 중세국어에서 관형격조사는 ‘시’이 사용되어야 해. ‘부텨 + 시’이면 ‘부텨’으로 쓸 수 있지.

##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② 문학

**[참고]**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 본 김에 EBS 연계 작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EBS 연계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출제 될 때마다 공부해두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현대시 [32~34번 지문] [김승희, ‘배꼽을 위한 연가 5’]

“공양미 삼백 석을 귀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을 어둠터라도 결국 인당수에 배하지는 않겠습니다.”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35p) #사용설명서(p26)

[작품 ‘한 눈에 보기’]

[EBS 작품 풀이]																			
<p>이 작품은 「심청전」을 재구성한 시로,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소설 속의 ‘심청’을 비판하며 <b>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b>하고 있다. ‘인당수’, ‘공양미 삼백 석’이라는 시어를 통해 「심청전」을 소재로 했음을 알 수 있으며,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b>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적인 태도의 필요성</b>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p>																			
주제	주체적인 태도의 필요성																		
EBS 연계 POINT																			
<p><b>[포인트1]</b> 표현상의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소리 「심청가」 및 고전 소설 「심청전」을 재구성한 작품으로, 소설 속 심청의 행동과 사건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주제를 변형함.</li> <li>• 설의법과 반복, 비유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함.</li> <li>•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li> <li>• 단호한 어투를 활용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냄.</li> </ul>																			
<p><b>[포인트2]</b> 작품 비교</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th> <th>「심청가」 및 「심청전」</th> <th>「배꼽을 위한 연가5」</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공통점</td>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 : 인당수, 공양미 삼백 석</li> <li>• 상황: 부모가 눈이 보이지 않음.</li> </ul> </td> </tr> <tr> <td rowspan="3">차이점</td> <td>갈래</td> <td>판소리, 소설</td> <td>시</td> </tr> <tr> <td>문제 해결 방법</td> <td>무조건적 희생</td> <td>주체적인 해결 방법 모색 (어머니에게 점자책을 사 드리고 읽는 법을 알려 드림.)</td> </tr> <tr> <td>주제</td> <td>심청의 지극한 효성</td> <td>주체적인 태도의 필요성</td> </tr> </tbody> </table>				「심청가」 및 「심청전」	「배꼽을 위한 연가5」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 : 인당수, 공양미 삼백 석</li> <li>• 상황: 부모가 눈이 보이지 않음.</li> </ul>		차이점	갈래	판소리, 소설	시	문제 해결 방법	무조건적 희생	주체적인 해결 방법 모색 (어머니에게 점자책을 사 드리고 읽는 법을 알려 드림.)	주제	심청의 지극한 효성	주체적인 태도의 필요성
		「심청가」 및 「심청전」	「배꼽을 위한 연가5」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 : 인당수, 공양미 삼백 석</li> <li>• 상황: 부모가 눈이 보이지 않음.</li> </ul>																	
차이점	갈래	판소리, 소설	시																
	문제 해결 방법	무조건적 희생	주체적인 해결 방법 모색 (어머니에게 점자책을 사 드리고 읽는 법을 알려 드림.)																
	주제	심청의 지극한 효성	주체적인 태도의 필요성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징을 파악하자.”

‘한수 모의고사’ <보기>

작품은 특정 인물을 화자로 설정하여 작가의 정서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은 심청을 연상시키는 인물을 화자로 설정하여 운명이나 현실적 억압과 같은 구속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작가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심청가」를 변용한 이 작품은, 눈이 먼 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길 거부하는 화자의 독백적 진술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tip- 참고]** 「심청가」 줄거리

심청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고, 맹인 아버지인 심학규 밑에서 자란다. 어려서부터 동냥을 하며 아버지를 모시던 심청은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면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다는 한 승려의 말을 듣고 남경 상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팔아 삼백석을 얻고 인당수에 몸을 던진다. 물에 빠진 심청은 용궁에서 어머니를 만나 앞으로의 운명을 전해 들은 뒤 삼 년 만에 연꽃에 싸여 인당수 수면 위로 떠오른다. 이때 남경 상인들이 돌아오다가 이를 발견하고 왕에게 갖다 바치고, 왕은 연꽃에서 나온 심청을 황후로 맞아들인다. 심청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왕에게 맹인 잔치를 열어 달라고 청하고, 맹인 잔치에서 딸을 만난 심 봉사는 놀라면서 두 눈을 뜬다.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극가 분명한 ‘진짜’는 아니다. 그러나 시공간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을 어둡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

**[tip]** 단호하고 의지적인 태도

‘인당수’ 및 ‘공양미 삼백석’은 작품이 심청전을 재구성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소재이다. 다만 심청전에선 아버지이지만 그 대상을 어머니로 변경했다. 화자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당신이 평생을 어둡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는 않겠습니다.’처럼 ‘결코’라는 부사어를 써가며 부모를 위한 희생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시를 짓고 책을 보는 주체적인 삶의 의지를 단호하게 드러내고 있다.

→ 1~2연 : 부모를 위한 희생을 거부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함.

나비여, / 나비여,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tip] 부모에게서 벗어나**

누에고치와 껍질은 모두 어린 생명을 품고 있는 것으로, 곧 부모의 품을 상징한다. 화자는 자신의 삶을 위해 이러한 부모의 품을 버리거나 부수는 게 죄가 아니라는 것을 설의적인 표현으로 강조함으로써 본인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있다.

→ 3연 : 자신의 삶을 이룩하기 위해 부모의 지배적 힘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당하다고 여김.

그 대신 점자책을 사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 드리지요.

→ 4연 :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자식으로서 약자인 부모에게 해 줄 수 있는 배려를 제시함.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와 같은 것—

**[EBS 확인하기] 배꼽 그리고 외국어**

시인은 「배꼽을 위한 연가 1」에서 “우리는 배꼽 위에서 평등하다.”라고 했다. 배꼽은 기본적으로 어머니와 자식 간의 혈육 관계를 상징하지만, 시인의 이 말에서 ‘배꼽’은 모든 관계의 평등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삶’을 ‘외국어’에 빚댄 작품의 표현에서 어머니와 자식도 결국에는 따로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평등한 존재라는 인식이 엿보인다.

**[tip-참고] 김승희, 「배꼽을 위한 연가 1」**

“우리는 배꼽위에서 평등하다 / 그것은 생일날의 흥터, / 과자들의 파찰, / 인망을 칠한 베품의 주황색 입술이 / 아삭아삭 제일 먼저 뜯어는 / 온순한 윗체의 이삭, / 우리는 배꼽 위에서 너무나 평등하다.”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 5연 : 각자 배워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인식과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함.

- 김승희, 「배꼽을 위한 연가 5」 -

극 [43~45번 지문] [오승욱 외, '8월의 크리스마스']

“플래시가 터진다. 한 번, 두 번, 세 번, 활짝 웃는 정원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차다. 그 사진은 그대로 정원의 영정 사진으로 대체된다.”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p215) #사용설명서(p208)

[작품 '한 눈에 보기'] “이해를 조금 돕는 정도로 가볍게-”

[전체 줄거리]

병으로 인해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정원은 주차 단속원인 다림을 만나 호감을 느낀다. 두 사람은 놀이공원에 놀러 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한 호감이 깊어지지만 시한부 인생인 정원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한다. 병이 악화된 정원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상황을 모르는 다림은 정원이 운영하던 문 닫힌 사진관 주변에서 서성인다. 다른 곳으로 전출하게 된 다림은 사진관에 찾아오지 않고, 정원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다. 정원이 죽은 이후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림은 사진관을 찾아와 사진관에 진열된 자신의 사진을 보고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EBS 확인하기] '8월의 크리스마스'

8월은 한여름의 성장과 관련된 계절로서 정원이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면서 다림을 만나 사랑을 느끼는 시기이고, 크리스마스는 12월이라는 겨울에 있는 기념일로, 축복, 사랑, 기쁨을 떠올리게 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제목인 '8월의 크리스마스'는 정원과 다림이 여름에 만나 사랑을 키우며 크리스마스에나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기쁨을 8월에 느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 : 죽음을 앞둔 남자의 사랑을 통해 바라본 삶과 죽음, 사랑의 의미에 대한 고찰

[EBS 작품 POINT]

▼ 사랑에 대한 정원과 다림의 태도 차이

**정원**

친하게 지내는 아가씨에게 연락해 주겠다는 동생의 말에 보고 싶은 사람이 없다며 거절함. 다림을 마음속으로만 그리워함.

→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감정 표현에 소극적이며,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함.

다림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소극적으로 대함.

----->  
←-----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고함.

**다림**

정원과 연락이 되지 않자 잠긴 정원의 사진관에 계속 찾아오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사진관에 편지를 넣음.

→ 20대의 주차 단속 요원으로 적극적이며 감정표현에 솔직함.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징을 파악하자.”

‘한수 모의고사’ <보기>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면을 배치하여 일상적 삶의 모습을 담담하게 보여 준다. 장면과 장면은 인과성 없이 분절되어 있는 듯하지만, 주인공의 죽음과 관련지어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 각각의 장면들이 애절하게 다가온다. 왜냐하면 주인공의 죽음을 통해 평범한 일상처럼 여겨졌던 그의 행동이 사실은 혼자 남게 될 아버지를 위한 배려였음이, 사랑을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 병을 앓고 있는 그의 처지로 인한 것이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계가 분명히 ‘전’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앞부분 줄거리] 30대 후반의 사진사인 정원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다림을 좋아하지만, 다림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S#69. 정원의 집(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아버지. 정원이 안방에 들어선다.

정원: 아버지 안 주무세요?

아버지: 야..... 이거 정말 어렵구나.

정원: 왜요?

아버지: 조금 있다가 「콰이강의 다리」를 하는데 그걸 예약 녹화해야 내가 잠을 자지.

정원: 그거 보려고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버지: 니 어미하고 봤던 영화잖아.

정원: (웃으며) 제가 해 드릴게요.

아버지에게 리모컨을 넘겨받은 정원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예약 녹화를 한다. 아버지는 정원이 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정원: 이제 아버지가 한번 해 보세요.

아버지는 순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틀린다. 정원이 가르쳐 주고 아버지는 반복해서 따라 하지만 제대로 작동을 시키지 못한다. 백지에다 비디오 작동법을 크게 그리는 정원. 아버지 그 종이를 들고 비디오를 작동시켜 본다. 이번엔 성공이다.

[중략 줄거리] 병세가 악화된 정원은 갑자기 입원하고 이로 인해 며칠간 사진관을 열지 못한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다림은 정원에게 쓴 편지를 사진관 문틈에 밀어 넣고 정원을 기다린다.

[EBS 확인하기] S# 99. 사진관 (낮) : ...(중략) 다림은 닫힌 사진관 문의 손잡이를 잡고 흔들며 본다.

Q. 출장 중이라는 핏말만 덩그러니 걸려 있는 ‘굳게 닫힌 사진관’과 ‘여전히 문이 잠겨 있’는 사진관을 통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 이야기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군.

A. 다림은 정원이 아프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정원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다림의 모습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사랑 이야기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103. 사진관 앞(밤)**

사진관 앞에 서 있는 다림. 한참을 서 있는 다림. 다림은 발길을 돌려 한쪽 길로 사라진다. 다림이 사라진 사진관 전경. 잠시 후 갑자기 다림이 다시 들어와 유리창에 무언가를 던진다. 깨지는 사진관 유리창. 멍한 표정으로 깨진 유리창 안을 바라보는 다림.

**S#104. 도로의 차 안(오전)**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는 정원. 그는 고개를 돌려 차창 밖의 풍경을 보고 있다. 운전석에는 정숙의 남편인 석희가 있고 그 옆에는 정원의 여동생 정숙이가 있다. 정원은 동네 입구에 들어서자 길 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본다.

**S#105. 사진관 앞(낮)**

정원 사진관 앞으로 걸어온다. **외출 중이라는 핏말**을 물끄러미 보고 나서 사진관 문을 여는 정원.

**S#106. 사진관 안(낮)**

소파에 앉아 다림의 편지를 읽는 정원. 정원은 간간이 미소 지으며 다림의 편지를 읽는다. 정원은 편지를 다 읽고 곱게 접어 봉투 속에 넣는다. 편지를 바라보는 정원. 사진관 밖으로 나가는 정원.

**S#107. 구청 앞(낮)**

멀리 스쿠터를 타고 구청으로 들어가는 정원이 보인다. 정원은 구청에서 나오는 주차 단속반원들을 보자 뭐라고 물어본다.

**S#108. 찻집(낮)**

거리가 보이는 찻집. 정원 창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유리창에 반사된 정원의 얼굴. 얼굴 너머로 멀리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다림이 보인다. 정원 손가락을 가만히 유리창에 갖다 대 본다. 다림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손가락.

**S#109. 암실**

현상액 속에 인화지를 넣는 정원. 서서히 사진의 형체가 드러나면서 다림의 얼굴이 보인다. 전에 정원이 찍어 준 다림의 증명사진이다. 현상액 속에서 웃고 있는 다림의 얼굴.

**S#110. 정원 집 마당(낮)**

잎새가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은 화초들이 화분에 담겨 마당에 놓여 있다. 카메라가 마루로 천천히 이동하면 정원이 바가지를 앞에 놓고 만년필을 만지고 있다. 만년필의 촉을 빼고 안을 분해하자 말라붙은 잉크가 덩어리져 있다. 잉크가 말라붙은 심을 물이 담긴 바가지에 담자 투명한 물에 잉크가 번진다.

**📺 영화적 요소**

외출중이라는 핏말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편지를 읽고, 또 다림이 움직이는 대로 손가락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애뜻한 감정은 느껴지지만 정작 이 감정들을 드러내는 어떠한 대사도 보이지 않는다. 여러 장면이 대사도 없이 흘러가지만 이를 구성하는 시각이미지만으로 충분히 의미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장면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는 인물의 심리 및 상황을 최대한 잘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다.** 즉 이를 읽는 독자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병치 혹은 대비되는 장면 간의 흐름을 인지하고 배경, 소품, 그리고 배우의 상징적인 행위 등의 시각적 장치에 주의하며 글을 읽어나가야 한다.**

**S#111. 사진관(낮)**

정원은 테이블 위에 편지를 놓고 편지를 쓰고 있다. 다 쓴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넣는 정원.

**S#112. 슈퍼마켓 앞(해 질 녘)**

파라솔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는 철구와 정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본다.

**철구:** 그 주차 단속원 아가씨 너 입원하고 안 보이더라. 그만뒀대?

**정원:** .....야. 벌써 가을이 다 갔네.

정원은 길가의 앙상한 가지들을 바라다본다.

**S#113. 사진관(밤)**

정원은 선반 위에 있는 박스와 앨범을 꺼낸다. 자신이 학생 때 찍은 사진들 몇 장이 나온다. 몇 장을 보다가 박스를 밀어 넣고 앨범을 펼친다. 한 장 한 장 앨범을 넘기면서 미소를 짓는다. 앨범을 넘기면서 정원의 미소는 점점 사라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눈물을 글썽거리는 정원. 한 장의 사진이 앨범에 붙어 있다. 자신이 찍어 준 다림의 증명사진이다. 정원, 앨범을 덮고 다림이 보낸 편지와 함께 다시 박스 속에 집어넣는다. 굳게 밀봉되는 박스.

**S#114. 촬영실(밤)**

정원, 벽에 걸린 손님용 양복을 입는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정원. 카메라 앞에 놓인 의자 위에 앉는다. 정원 다시 일어나 카메라를 보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는 자리에 앉는다. 플래시가 터진다. 한 번, 두 번, 세 번, 활짝 웃는 정원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찬다. 그 사진은 그대로 정원의 영정 사진으로 디졸브\* 된다. 활짝 웃고 있는 정원의 영정 앞에는 향불이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다. 암전.

- 오승욱, 허진호, 신동환 각본, 「8월의 크리스마스」 -

\* 디졸브(dissolve): 하나의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사라지는 동시에 다음 화면이 밝아지면서 나타나는 편집 기법.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재가 분명히 '진짜'는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b>해제</b>	<p>이 작품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가면서도 죽음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과 안타까운 사랑을 그려 낸 시나리오이다. 하지만 안타까움과 슬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인물의 기억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객관적으로 사건을 전개함으로써 죽음과 이별을 담담하게 그려 내고 있다. 대사보다 지시문의 비중을 높게 하여 정적인 영상으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도록 하고 있으며, 인물 간의 애절한 사랑을 아름답게 보여 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인물의 상황을 암시하는 상징적 소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여름에서 크리스마스까지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삶과 죽음, 사랑의 의미 등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p>

**[포인트] 인물의 심리 표현 방법**

- 이 작품은 인물 간의 대화보다는 인물의 행동을 카메라가 보여 주는 방법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관객은 인물의 표정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이해해야 한다. 관객은 영화를 감상하면서 다림이 사진관에 편지를 넣는 이유, 정원이 활짝 웃는 얼굴로 영정 사진을 찍는 이유, 정원이 활짝 웃는 얼굴로 영정 사진을 찍는 이유, 다림의 사진을 사진관에 진열한 이유 등을 작품의 전체 맥락에서 짐작하게 된다.

장면 번호	인물의 행동	인물의 심리
S#96.	다림이 잠긴 사진관에 편지를 넣음.	갑자기 연락이 끊긴 정원과 소통하기를 바라는 다림의 마음을 엿볼 수 있음.
S#114.	정원이 활짝 웃으며 영정 사진을 찍음.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여려는 정원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음
S#115	다림이 사진관에 진열된 자신의 사진을 보고 환하게 웃음.	사진관에 진열된 자신의 사진을 보고 정원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다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음.

**EBS 사용설명서, 「더 알아보기」**

- 이 작품에서 '정원'이 '다림'을 마음속으로만 그리워하는 장면  
 시한부의 삶을 사는 정원은 다림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다림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다림이 사진관에 넣어 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짓고, 다림이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모습은 정원이 다림을 좋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다.

**S#. 106. 사진관 안(낮)**

소파에 앉아 다림의 편지를 읽는 정원. 정원은 간간히 미소 지으며 다림의 편지를 읽는다. 정원은 편지를 다 읽고 곱게 접어 봉투 속에 넣는다. / 편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정원. / 사진관 밖으로 나가는 정원.

**S#. 107. 사진관 안(낮)**

소파에 앉아 다림의 편지를 읽는 정원. 정원은 간간히 미소 지으며 다림의 편지를 읽는다. 정원은 편지를 다 읽고 곱게 접어 봉투 속에 넣는다. / 편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정원. / 사진관 밖으로 나가는 정원.

S#. 108. 찻집(낮)

거리가 보이는 찻집. 정원, 창가에 앉아 창을 내다보고 있다. 유리창에 반사된 정원의 얼굴. 얼굴 너머로 멀리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다림이 보인다. / 정원, 손가락을 가만히 유리창에 갖다 대 본다. 다림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손가락.

[참고하기] EBS 'Q & A'

Q. 제목 '8월의 크리스마스'에 담긴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 '8월은' 여름이고 '크리스마스'는 겨울이기 때문에 두 단어의 조합은 모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월'인 여름은 정원과 다림이 만나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시기이고, '크리스마스'는 정원이 죽어서 세상을 떠났지만 정원이 사진관에 진열한 다림의 사진을 통해 다림이 정원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얼핏 모순되어 보이는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은 '8월에 이루어진 낭만적인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정원의 입장에서는 맞이할 수 없는 '크리스마스'의 낭만적 사랑을 '8월'에 이루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BS 핵심 문제

<보기> 「8월의 크리스마스」의 내러티브는 죽음과 사랑이라는 큰 축이 서로 교차되며 전개되고 있다. 사랑 이야기가 전개의 주가 되고 죽음이 간간히 끼어들어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점차 죽음이 주된 이야기 축을 만들어 간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축을 결합하면 '심각한 병에 걸린 남자가 이를 모르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지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여짐으로써 이별하게 된다.'로 정리할 수 있다.

발문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선지

- ① 활짝 웃는 '정원의 영정 사진'과 사진관 진열관 앞에서 '활짝 웃는 다림의 얼굴'에서 죽음과 사랑이라는 큰 축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앨범을 넘기면서 점점 사라지는 '정원의 미소'와 '굳게 밀봉되는 박스'를 통해 남자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엿볼 수 있군.
- ③ 출장 중이라는 핏말만 덩그러니 걸려 있는 '굳게 닫힌 사진관'과 '여전히 문이 잠겨 있'는 사진관을 통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 이야기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군.
- ④ '됐어..... 보고 싶은 사람 없어.'라는 정원의 말과 '닫힌 사진관 문의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보는 다림의 행동을 통해 남자는 병에 걸린 것을 여자에게 알리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구겨진 편지 봉투 대신 '새 봉투에 편지를 넣'으려는 다림과 '다 쓴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넣는 정원'의 모습을 통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을 볼 수 있군.

정답 해설

⑤ 다림의 편지는 정원이 연락도 없이 자신과 만나 주지 않는 상황에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쓴 것이고, 정원의 편지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다림에게 쓴 것이므로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는 관계가 없다.

**한글** 불 지문 "비교하기, <시나리오>, 평가원 -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 박상연 원작, 박상욱 각색 外 / 「공동 경비 구역 JSA」"

[앞부분 줄거리] 공동 경비 구역에서 근무하는 국군 이수혁 병장, 남성식 일병(수정의 오빠)과 인민군 오경필 중사, 정우진 전사 사이에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는 소피 소령을 파견하여 보타 소장 관할 아래 사건을 조사하게 한다.

**㉠S#79. 팔각정 (낮)**

팔각정에서 본 판문각 근처 부감\* 전경 — 대질 심문을 받고 나온 수혁, 경필 일행이 회담장 앞에서 각각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다. 카메라, 후진하면서 팔각정 내부로 초점 이동하면 보타의 손이 쑥 들어와 서류 봉투를 내민다.

**소피 :** (영어) (봉투를 받아 들고) 뭐죠?

보타, 대답 대신 관측경을 들여다본다.

**보타 :** (영어) 한국이 처음이랬지?

㉠보타의 관측경으로, 판문각 앞에서 쌍안경을 들고 이쪽을 관찰하는 북한 군인이 보인다.

**보타 :** (영어) (목소리) 그래 '아버지' 나라가 마음에 들던가?

㉠판문각 쪽에서 북한 군인의 쌍안경 시점으로, 사진을 보고 있는 소피의 모습이 잡힌다.

보타의 설명 사이사이, 한국전 당시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생활과 좌우 투쟁, 종전 후 공산 포로 복송, 반공 포로 석방 및 제3국행 포로의 출발과 도착 장면들이 사진과 기록 영화 화면으로 편집된다.

**보타 :** (영어) (목소리) ㉠한국전 당시 거제도에는 인민군 포로수용소가 있었지. 그 속에서 공산주의자와 반공주의자, 두 무리 간엔 처참한 살육이 계속됐어. 종전되고 그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어. 남으로의 귀순이냐, 북으로의 귀환이냐... 그 17만 포로 중 76명은 둘 다를 거부했어. 그들 중 지금도 행방이 묘연한 사람이 있네. 바로... 자네 아버지 장연우 같은 사람이지.

소피, 놀란 얼굴로 손에 든 다른 사진을 내려다보면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들, 결박당한 채 쪼그리고 앉아 있다. ㉠그중 동그라미가 쳐진 사람 얼굴로 zoom인\*.

**보타 :** (영어) 표 장군이 매우 쫄쫄하게 움직였더군. 국방부, 외무부, 인도, 아르헨티나, 스위스 대사관... 며칠 사이 정보란 정보는 다 모았어. 표 장군으로선 ㉠전 인민군 장교의 딸인 자네에게 사건을 맡길 수 없었겠지.

**소피 :** (영어) (흥분해서) 3일이면 돼요. 곧 이 병장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가요.

**(중략)**

**㉠S#81. 소피의 숙소 (낮)**

침대에 가방을 올려놓고 짐을 싸는 소피. 사진 액자를 가방에 넣으려다 말고 들여다본다. 어린 시절의 소피와 스위스인 엄마 사진. 액자 뒤를 열어 가족사진을 꺼낸다. 접힌 부분을 펴자 숨겨진 아버지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난다. 물끄러미 사진을 바라보는 소피.

**S#82. 수사본부 (낮)**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수혁, 목발을 짚었다. 사진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소피.

**소피 :** (수혁을 돌아보며) 오라고 해서 미안해요. 몸도 불편한데.

영문을 모르고 불러 온 수혁이 가만히 지켜보는 가운데, 탁자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들고 출입구 앞으로 가는 소피, 과녁판에서 다트 화살을 뽑아 든 다음 서류 한 장을 훑어 고정시킨다.

**소피 :** 내일 자정을 기해 나를 제이에스에이 근무에서 해제한다는 명령서예요.

**수혁 :** 들었습니다, 아버지 얘기.

**소피 :** 그래, 내가 인민군 장교의 딸이란 얘길 듣고 기분이 어떻던가요?

수혁 : (주저 없이)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소피, 당황한 듯 잠시 침묵했다가 군복 안에 받쳐 입은 터틀넥 스웨터의 목을 찢혀 보인다. 목에 나 있는 피멍 자국.

소피 : 난 아직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병장은 깨끗하네요. 이 병장이 오 중사보다 힘이 센가 보지요?

당황하는 수혁, 대답 없다.

소피 : 자, 진짜 재미난 쇼는 이제부터예요. 잘 봐요.

수정의 얼굴이 프린트된 출력물을 과녁판에 꽂는 소피. 당황하는 수혁.

소피 : 수정 씨를 만나자마자 전에 본 적이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이번에는 수정의 초상화를 과녁판에 꽂는 소피. 놀라는 수혁.

소피 : 정우진이 그린 초상화예요. 그리고 이건 (찢어져 너털너털한 얼굴 없는 사진을 과녁판에 꽂으며) 정우진의 시신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과녁판에 나란히 부착된 ㉡석 장의 이미지. 충격받은 표정의 수혁.

소피 : '사라진 탄환'이 남 일병의 알리바이를 깨는 증거였다면... (얼굴이 찢겨 나간 사진을 가리키며) '사라진 얼굴'은 네 명의 병사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다는 걸 뜻하는 증거죠.

수혁, 애써 외면하고 걸어간다.

수혁 : 그래서요?

㉢노란색과 빨간색 디스켓 두 개를 꺼내 보이는 소피.

소피 :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수사 보고서예요. 내가 뭘 제출하느냐는 이 병장한테 달렸어요. 진실을 말해 준다면 난 후임자에게 어떤 증거나 추리도 제공하지 않겠어요.

수혁 : 협박입니까?

소피 : 거래죠.

수혁 : 영창을 가둔 훈장을 받든 전 관심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의 대가로 소령님이 저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뭐니까?

소피 : 이 병장이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오경필의 안전이에요.

- 박상연 원작, 박찬욱 외 각색, 「공동 경비 구역 JSA」-

\*부감 : 카메라가 인물의 시선보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촬영하는 것.

\*줌인 : 피사체의 크기를 점점 확대 촬영하는 것.

문제 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선지	① '소피'의 아버지는 전쟁이 끝나자 북으로 귀환한다. ② '소피'는 사건의 진실에 대해 조사 의지가 없다. ③ '수혁'은 '소피'의 아버지의 전력을 듣고 '소피'를 경계한다. ④ '소피'는 '사라진 얼굴'이 누구인지 짐작하지 못한다. ⑤ '소피'는 '수혁'이 '오경필'의 안전을 염려한다고 생각한다.
정답 해설	⑤ 윗글 마지막 소피의 대사 '이 병장이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오경필의 안전이에요.'에서 '수혁'이 '오경필'의 안전을 염려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b>오답 풀이</b></p>	<p>① S#79.의 밑줄 친 ㉠ 마지막 부분 '그들 중 지금도 행방이 묘연한 사람이 있네. 바로... 자네 아버지 장연우 같은 사람이지.'에서 '소피'의 아버지가 전쟁이 끝나고 북으로 귀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p> <p>② S#82.의 끝부분에서 '소피'는 '수혁'에게 진실을 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진실에 대해 조사 의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p> <p>③ S#82.에서 '수혁'의 두 번째 대사 '친근감이 들었습니다.'를 보면 '소피' 아버지의 전력을 듣고 그녀를 경계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p> <p>④ S#82.에서 '소피'의 여덟 번째 대사 중 "사라진 얼굴'은 네 명의 병사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다는 걸 뜻하는 증거죠.' 부분을 통해 '소피'가 짐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p>
<p><b>문제 2</b></p>	<p>㉠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b>문제 선지</b></p>	<p>① ㉠의 공간 범위는 팔각정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포함한다.</p> <p>② ㉡는 '소피'가 직무에서 해제되는 원인이 된다.</p> <p>③ ㉢는 '소피'가 네 병사의 관계를 짐작하게 된 단서이다.</p> <p>④ ㉣는 '수혁'이 진실을 밝히느냐에 따라 어느 것이 제출될지가 정해질 것이다.</p> <p>⑤ ㉤는 '수혁'이 수사본부에 있는 '소피'를 만나러 온 이유이다.</p>
<p><b>정답 해설</b></p>	<p>⑤ S#82.에서 '소피'의 첫 번째 대사를 보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피'가 '수혁'을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실의 대가를 얻기 위해 '수혁'이 '소피'를 만나러 왔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p>
<p><b>오답 풀이</b></p>	<p>① S#79.에서 '팔각정에서 본 판문각 근처 부감 전경'과 '팔각정 내부로 초점 이동'하는 카메라의 시선이 드러나 있으므로, ㉠의 공간 범위는 팔각정 내부와 외부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p> <p>② S#79.에서 '보타'의 마지막 대사 중 '표 장군으로선 전 인민군 장교의 딸인 자네에게 사건을 말길 수 없었겠지.'를 통해 ㉡는 '소피'가 직무에서 해제되는 원인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p> <p>③ S#82.에서 '소피'가 '진짜 재미난 쇼'라고 말하며 '석 장의 이미지'를 '수혁'에게 제시하며 말하는 부분을 통해, ㉢가 네 명의 병사가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한 단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p> <p>④ ㉣ 바로 뒤에 이어지는 '소피'의 대사에서 '수혁'이 진실을 말하느냐에 따라 어떤 디스켓을 제출할지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p>
<p><b>문제 3</b></p>	<p>윗글을 영상화한다고 가정할 때, ㉠ ~ ㉣에 해당하는 감독의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b>문제 선지</b></p>	<p>① ㉠과 ㉡은 각각 관측경과 쌍안경으로 상대측을 바라보는 장면을 설정하여 남북한 대치 국면에 있는 S#79 공간의 특수성을 그려야겠어.</p> <p>② ㉢은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촬영과 달리 사진이나 기록 영상물을 제시하여 당시 상황을 보여 주어야겠어.</p> <p>③ ㉣은 동그라미 처진 얼굴을 확대 촬영하여 '소피'의 아버지가 포로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환기해야겠어.</p> <p>④ ㉤은 대사 없이 인물의 행동과 소품으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해야겠어.</p> <p>⑤ ㉤은 사건의 맥락이 관객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실내 전체를 한 화면에 담아야겠어.</p>
<p><b>정답 해설</b></p>	<p>⑤ ㉤은 '소피'의 '목에 나 있는 피멍 자국'으로 초점화 되는 장면이므로, 실내 전체를 한 화면에 담아내는 연출로 사건의 맥락을 관객에게 인지시키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멍 자국'을 자세히 클로즈업하는 카메라 기법을 사용하여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p>



##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③ 독서

[참고] 아래 분석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실제 읽었던 느낌을 기억하여 그대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내용은 실전에서 이 정도 읽어주면 된다는 ‘선’을 여러분들의 ‘선’과 맞춰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와중에 이 정보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읽었어야 하는 최소한의 ‘선’과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렇다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 기술[38~42번 지문][태양 전지의 발전 원리]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한 번 정독할 것을 추천합니다.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태양광 발전은 기후 변동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차세대 에너지원 중 하나로 꼽힌다. 빛에 의해 기전력<sup>\*</sup>이 생기는 현상인 광기전력 효과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치는 태양 전지이다. 태양 전지는 태양광을 비롯한 빛을 흡수하면 전류를 발생시키는 물질의 소재에 따라 실리콘 계열과 유기 계열로 나눌 수 있다.

실리콘 계열의 태양 전지는 여분의 양공들이 있는 P형 반도체와 여분의 전자들이 있는 N형 반도체를 접합한 P-N 접합 소자로 만든다. 빛을 비추지 않은 상태에서 P-N 접합 소자의 접합면 주위에는 전기장이 형성된다. P형의 양공들과 N형의 전자들이 접합면을 넘나들며 그 근처에서 결합하므로, 접합면의 P형 쪽과 N형 쪽이 각기 음전하와 양전하를 띠게 되어 전기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전기장은 일단 형성되면 P형의 양공과 N형의 전자가 더 이상 접합면 너머로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장벽 역할을 한다. 이를 퍼텐셜 장벽이라고 부른다.

실리콘 계열의 P-N 접합 소자에 해당 소자의 밴드 갭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빛이 흡수되면 전자-양공 쌍이 생성된다. 밴드 갭 에너지란 전자를 들뜬상태로 만들어 전자-양공 쌍을 생성하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반도체의 소재마다 그 값이 다르다. 전자-양공 쌍이 생성되면, 전자는 N형으로, 양공은 P형으로 모이게 된다. P형에서 생성된 전자와 N형에서 생성된 양공은 자유롭게 이동하다가 접합면 주위에 걸린 전기장에 의해 상대방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N형과 P형에 각각 전자와 양공이 모이면, 두 반도체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하여 기전력이 생긴다. 이로 인해 P형과 N형을 외부 도선으로 연결하면 N형 쪽의 전자가 도선을 통해 P형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패널 형태인 태양 전지의 성능은 에너지 변환 효율로 나타낸다. 에너지 변환 효율은 표준 조건에서 단위 면적의 태양 전지에서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를 단위 면적의 태양 전지에 입사되는 빛 에너지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는데, 실리콘 계열은 이론상 최대치의 에너지 변환 효율이 약 30%이다. 태양광을 이루는 모든 파장의 빛 에너지가 전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론상 최대치의 효율은 P-N 접합 소자의 밴드 갭 에너지와 관련된다. 밴드 갭 에너지가 작을수록 소자에 흡수되는 빛의 파장 대역이 넓어져 더 많은 전자-양공 쌍이 생성되지만 그만큼 열로 손실되는 에너지도 커지고, 밴드 갭 에너지가 클수록 소자에 흡수되는 빛의 파장 대역이 좁아져 전자-양공 쌍이 더 적게 생성된다. 표준 조건에서 이론상 최대치의 효율이 최대치가 되는 밴드 갭 에너지는  $1.4eV^*$ 이지만, 밴드 갭 에너지가  $1.1eV$ 에 불과한데도 실리콘이 P-N 접합 소자의 소재로 주로 활용되는 것은 제조 비용이나 희소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또, 어떤 소재를 사용하든 내부 저항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이론상 최대치의 효율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기 계열 중에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염료 감응형 태양 전지로, P-N 접합 소자 대신 빛을 흡수하면 전자를 내어 주는 유기 염료와 전자를 받기 쉬운 반도체 등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염료 감응형은 제조 단가가 훨씬 저렴하고 태양광의 입사각이 낮아져도 실리콘 계열에 비해 에너지 변환 효율이 감소하는 정도가 적어 아침과 저녁에도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외기 온도가 상온인

25°C에서 40°C로 상승하면 효율이 감소하는 실리콘 계열과 달리 오히려 효율이 증가한다. 인공조명을 쓰는 실내에서도 실리콘 계열에 비해 효율의 감소가 적어 다양한 용도의 소규모 발전에는 더 적합한 편이다. 그러나 에너지 변환 효율 자체가 매우 낮아 이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기전력: 두 지점 사이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

\*eV(전자볼트): 에너지의 단위.

### [실전 읽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태양광 발전(C)은 기후 변동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차세대 에너지원 중 하나로 꼽힌다. 빛에 의해 기전력\*이 생기는 현상인 광기전력 효과(C)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치는 태양 전지이다. 태양 전지는 태양광을 비롯한 빛을 흡수하면 전류를 발생시키는 물질의 소재에 따라 실리콘 계열과 유기 계열로 나눌 수 있다.

####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1문단 차분하게 읽어줍니다. 태양광 발전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 ② 첫 번째 문단에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고 하였는데, 다음 문장에서는 빛에 의해 기전력이 생긴다고 하네요. 연결이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전력은 두 지점 사이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힘인데, 이게 결국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한 '전기 에너지'에 대응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지문 안에서는 '전류가 흐른다=전기 에너지 생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과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 같은 문과 학생들은 이런 것도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 ③ '실리콘 계열'과 '유기 계열'로 '태양 전지'의 종류가 나열될 것 같네요. 방향만 잡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실리콘 계열의 태양 전지는 여분의 양공들이 있는 P형 반도체와 여분의 전자들이 있는 N형 반도체를 접합한 P-N 접합 소재(C)로 만든다. 빛을 비추지 않은 상태에서 P-N 접합 소재의 접합면 주위에는 전기장이 형성된다. P형의 양공들과 N형의 전자들이 접합면을 넘나들며 그 근처에서 결합하므로, 접합면의 P형 쪽과 N형 쪽이 각기 음전하와 양전하를 띠게 되어 전기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전기장은 일단 형성되면 P형의 양공과 N형의 전자가 더 이상 접합면 너머로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장벽 역할을 한다. 이를 퍼텐셜 장벽(C)이라고 부른다.

####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역시나 나열입니다. '실리콘 계열'의 태양 전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실리콘 계열 태양 전지의 구성 요소로 'P-N 접합 소재'가 제시되었는데, 이 'P-N 접합 소재'의 구성 요소로 다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제시되었습니다.
- ② 상황 구분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빛을 비추지 않은' 상태에서 P-N 접합 소재의 접합면 주위에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이때 '접합면'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결합되는 지점이 되겠지요.
- ③ 다음 문장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P형의 양공들과 N형의 전자들이 접합면을 넘나들며 그 근처에서 결합'하는 것은 '전기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즉 'P형의 양공들과 N형의 전자들이 접합면을 넘나들며 그 근처에서 결합'하는 것이 '원인'이고, '전기장 형성'이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 ④ 결과적으로, 접합면에 전기장이 형성되면 접합면의 P형 쪽과 N형 쪽은 각각 '음전하'와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 ⑤ 전기장이 형성되고 나면, 더 이상의 접합면을 통한 전자 이동은 사라집니다. '전기장'이 장벽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전기장의 역할을 '퍼텐셜 장벽'이라고 합니다.

실리콘 계열의 P-N 접합 소자에 해당 소자의 **밴드 갭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빛이 흡수되면 전자-양공 쌍이 생성된다. **밴드 갭 에너지**란 전자를 들뜬상태로 만들어 전자-양공 쌍을 생성하는 최소한의 에너지(C)로, 반도체의 소재마다 그 값이 다르다. 전자-양공 쌍이 생성되면, 전자는 N형으로, 양공은 P형으로 모이게 된다. P형에서 생성된 전자와 N형에서 생성된 양공은 자유롭게 이동하다가 접합면 주위에 걸린 전기장에 의해 상대편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N형과 P형에 각각 전자와 양공이 모이면, 두 반도체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하여 기전력이 생긴다. 이로 인해 P형과 N형을 외부 도선으로 연결하면 N형 쪽의 전자가 도선을 통해 P형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자, 2문단에서 상황 구분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했지요. 기술 지문에서는 상황과 원리가 묶여서 나오는 유형이 많기 때문에, 상황 구분이 안 됐을 때 정보들이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② 3문단의 상황은 P-N 접합 소자에 '밴드 갭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빛이 흡수되는 상황입니다. 2문단의 상황은 빛이 흡수되지 않았을 때였으니, '밴드 갭 에너지'가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최소한 2문단과 3문단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있겠지요. 구분해서 정리해줘야 합니다.
- ③ '밴드 갭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야겠지요, 이 에너지는 '전자-양공 쌍'을 생성하는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밴드 갭 에너지'만큼의 에너지가 있으면 '전자-양공 쌍'이 생성된다는 뜻이 됩니다.
- ④ 이때 '밴드 갭 에너지'는 '고유한 수'입니다. 소재마다 다르다는 뜻이지요. 이런 '고유한 수'는 비교값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⑤ 빛이 흡수되어서 '전자-양공 쌍'이 생성되면, 전자는 N형으로, 양공은 P형으로 모이게 됩니다. N형 반도체에서도 전자-양공 쌍이 생성될 것이고, P형 반도체에서도 전자-양공 쌍이 생성될 것인데, N형에서는 둘 중에 '양공'이 P형으로 이동하고, P형에서는 '전자'가 N형으로 이동하는 것이지요.
- ⑥ 다음 문장에서 분명 '응?'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겁니다. 2문단에서는 '전기장'이 분명 '장벽'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전자와 양공이 접합면을 넘나들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기장'에 의해 전자와 양공이 상대편으로 넘어간다니,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벽 역할을 할 때는 N형의 전자와 P형의 양공이 접합면을 건너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기장이 '다리' 역할을 할 때는 N형의 양공과 P형의 전자가 상대편으로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N형의 전자와 P형의 양공이 상대편으로 넘어가는 걸 막는 장벽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독해해 주느냐, 못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렵겠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 읽어낼 수 있겠지요.
 

[상황<sup>1</sup>] 빛 에너지 흡수 X ⇨ 전기장 '장벽 역할'

[상황<sup>2</sup>] 빛 에너지 흡수 O ⇨ 전기장 '다리 역할'
- ⑦ 이렇게 N형과 P형에 각각 반대편에서 온 전자와 양공이 모이면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1문단에서 이미 연결시켜놓았었지요. '기전력=전류 흐름 발생=전기 에너지 생성'입니다.
- ⑧ 전류의 흐름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설명도 제시되었는데, 간단합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외부 도선'으로 연결하면 전류의 흐름이 생기고,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헛갈리지 맙시다. 접합면을 통한 연결이 아니라 '외부 도선'을 통한 연결입니다.

패널 형태인 태양 전지의 성능은 **에너지 변환 효율**로 나타낸다. **에너지 변환 효율**은 표준 조건에서 단위 면적의 태양 전지에서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를 단위 면적의 태양 전지에 입사되는 빛 에너지로 나눈 값(C)으로 정의되는데, 실리콘 계열은 **이론상 최대치의 에너지 변환 효율**이 약 30%이다. 태양광을 이루는 모든 파장의 빛 에너지가 전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론상 최대치의 효율**은 P-N 접합 소자의 **밴드 갭 에너지**와 관련된다. **밴드 갭 에너지**가 작을수록 소자에 흡수되는 빛의 파장 대역이 넓어져 더 많은 전자-양공 쌍이 생성되지만 그만큼 열로 손실되는 에너지도 커지고, **밴드 갭 에너지**가 클수록 소자에 흡수되는 빛의 파장 대역이 좁아져 전자-양공 쌍이 더 적게 생성된다. 표준 조건에서 이론상 최대치의 효율이 최대치가 되는 **밴드 갭 에너지**는  $1.4eV^*$ 이지만, **밴드 갭 에너지**가  $1.1eV$ 에 불과한데도 실리콘이 P-N 접합 소자의 소재로 주로 활용되는 것은 제조 비용이나 희소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또, 어떤

소재를 사용한 내부 저항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이론상 최대치의 효율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에너지 변환 효율'을 구하는 방식이 제시되었습니다. 당연히 메모해야겠지요. 문제에서 반드시 쓰일 공식입니다.  
 에너지 변환 효율 : 생성된 전기 에너지 / 입사된 빛 에너지
- ② '실리콘 계열' 태양 전지의 이론상 최대 에너지 변환 효율은 30%입니다. '이론상' 최대 효율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높네요.
- ③ 메모할 내용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밴드 갭 에너지와 파장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과 묶어서 메모해줍니다.  
 밴드 갭 에너지↑ → 흡수되는 파장 대역↓ → 전자-양공 쌍 생성↓ → 열로 손실되는 에너지↓
- ④ 한 가지 눈치 챘으면 좋겠는 내용은, '밴드 갭 에너지'가 커지는 것은 양가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생성되는 전자-양공 쌍이 적어지는 것은 전기 에너지 생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열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요. 이는 '밴드 갭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을 비례, 반비례 관계로 묶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다루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 ⑤ 실리콘 계열 태양 전지의 밴드 갭 에너지는 1.1eV입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의식적으로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머리에 잘 남습니다. 기억하는 게 좋은 이유는, 문제에서 비교 값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⑥ 중요한 문장이 나왔네요. '이론상 최대치의 효율'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 짓는 표현은 선지에서 다루기 좋습니다.

유기 계열 중에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염료 감응형 태양 전지](C)로, P-N 접합 소자 대신 빛을 흡수하면 전자를 내어 주는 유기 염료와 전자를 받기 쉬운 반도체 등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염료 감응형은 제조 단가가 훨씬 저렴하고 태양광의 입사각이 낮아져도 실리콘 계열에 비해 에너지 변환 효율이 감소하는 정도가 적어 아침과 저녁에도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외기 온도가 상온인 25°C에서 40°C로 상승하면 효율이 감소하는 실리콘 계열과 달리 오히려 효율이 증가한다. 인공조명을 쓰는 실내에서도 실리콘 계열에 비해 효율의 감소가 적어 다양한 용도의 소규모 발전에는 더 적합한 편이다. 그러나 에너지 변환 효율 자체가 매우 낮아 이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지금까지 '실리콘 계열' 태양 전지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제 '유기 계열' 태양 전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보량이 많기는 하지만 차이점을 지문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주었기 때문에, 읽기 어려운 문단은 아닙니다. 차이점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놓치지않으면 됩니다.
- ② 간단하게 정리해줍니다.

[실리콘 계열 태양 전지]	[유기 계열 태양 전지]
P-N 접합 소자 사용	유기 염료, 반도체 사용
제조 단가↑	제조 단가↓
입사각에 따른 에너지 변환 효율 변화↑	입사각에 따른 에너지 변환 효율 변화↓
상온 이상 올라가면 에너지 변환 효율↓	상온 이상 올라가면 에너지 변환 효율↑
소규모 발전에 적합 X	소규모 발전에 더 적합 O
	에너지 변환 효율↓

\*기전력: 두 지점 사이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

\*eV(전자볼트): 에너지의 단위.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태양광 발전은 기후 변동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차세대 에너지원 중 하나로 꼽힌다. 빛에 의해 기전력\*이 생기는 현상인 광기전력 효과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치는 태양 전지이다. 태양 전지는 태양광을 비롯한 빛을 흡수하면 전류를 발생시키는 물질의 소재에 따라 실리콘 계열과 유기 계열로 나눌 수 있다.

① 실리콘 계열의 태양 전지는 여분의 양공들이 있는 P형 반도체와 여분의 전자들이 있는 N형 반도체를 접합한 P-N 접합 소자로 만든다. 빛을 비추지 않은 상태에서 P-N 접합 소자의 접합면 주위에는 전기장이 형성된다. P형의 양공들과 N형의 전자들이 접합면을 넘나들며 그 근처에서 결합하므로, 접합면의 P형 쪽과 N형 쪽이 각기 음전하와 양전하를 띠게 되어 전기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전기장은 일단 형성되면 P형의 양공과 N형의 전자가 더 이상 접합면 너머로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장벽 역할을 한다. 이를 퍼텐셜 장벽이라고 부른다.

실리콘 계열의 P-N 접합 소자에 해당 소자의 밴드 갭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빛이 흡수되면 전자-양공 쌍이 생성된다. 밴드 갭 에너지란 전자를 들뜬상태로 만들어 전자-양공 쌍을 생성하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반도체의 소재마다 그 값이 다르다. 전자-양공 쌍이 생성되면, 전자는 N형으로, 양공은 P형으로 모이게 된다. P형에서 생성된 전자와 N형에서 생성된 양공은 자유롭게 이동하다가 접합면 주위에 걸린 전기장에 의해 상대편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N형과 P형에 각각 전자와 양공이 모이면, 두 반도체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하여 기전력이 생긴다. 이로 인해 P형과 N형을 외부 도선으로 연결하면 N형 쪽의 전자가 도선을 통해 P형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패널 형태인 태양 전지의 성능은 에너지 변환 효율로 나타낸다. 에너지 변환 효율은 표준 조건에서 단위 면적의 태양 전지에서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를 단위 면적의 태양 전지에 입사되는 빛 에너지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는데, 실리콘 계열은 이론상 최대치의 에너지 변환 효율이 약 30%이다. 태양광을 이루는 모든 파장의 빛 에너지가 전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론상 최대치의 효율은 P-N 접합 소자의 밴드 갭 에너지와 관련된다. 밴드 갭 에너지가 작을수록 소자에 흡수되는 빛의 파장 대역이 넓어져 더 많은 전자-양공 쌍이 생성되지만 그만큼 열로 손실되는 에너지도 커지고, 밴드 갭 에너지가 클수록 소자에 흡수되는 빛의 파장 대역이 좁아져 전자-양공 쌍이 더 적게 생성된다. 표준 조건에서 이론상 최대치의 효율이 최대치가 되는 밴드 갭 에너지는 1.4eV\*이지만, 밴드 갭 에너지가 1.1eV에 불과한데도(실리콘이 P-N 접합 소자의 소재로 주로 활용되는 것은) 제조 비용이나 회소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또, 어떤 소재를 사용하든 내부 저항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이론상 최대치의 효율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기 계열 중에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염료 감응형 태양 전지로, P-N 접합 소자 대신 빛을 흡수하면 전자를 내어

주는 유기 염료와 전자를 받기 쉬운 반도체 등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염료 감응형은 제조 단가가 훨씬 저렴하고 태양광의 입사각이 낮아져도 실리콘 계열에 비해 에너지 변환 효율이 감소하는 정도가 적어 아침과 저녁에도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외기 온도가 상온인 25℃에서 40℃로 상승하면 효율이 감소하는 실리콘 계열과 달리 오히려 효율이 증가한다. 인공조명을 쓰는 실내에서도 실리콘 계열에 비해 효율의 감소가 적어 다양한 용도의 소규모 발전에는 더 적합한 편이다. 그러나 에너지 변환 효율 자체가 매우 낮아 이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 기전력: 두 지점 사이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  
\* eV(전자볼트): 에너지의 단위.

38.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 ① 태양광 발전은 화석 연료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여겨진다. ○
- ② 태양 전지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장치이다. ○
- ③ 태양 전지의 P-N 접합 소자는 실리콘 이외의 물질로도 만들 수 있다. ○
- ④ 태양 전지의 소재는 에너지 변환 효율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 선택된다. X
- ⑤ 태양 전지는 P-N 접합 소자의 소재에 따라 이론상 최대치의 에너지 변환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 ○

39. ㉠,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① ㉠과 ㉡ 모두 빛의 입사각이 낮아지면 에너지 변환 효율이 감소한다. ○
- ② ㉠과 ㉡ 모두 외기 온도가 상온보다 높아지면 에너지 변환 효율이 증가한다. X
- ③ ㉠과 ㉡ 모두 빛을 흡수하면 전자를 내어 주는 반도체를 활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X
- ④ ㉠은 ㉡과 달리 실내에서 인공조명의 빛을 흡수하는 것만으로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다. X
- ⑤ ㉡은 ㉠과 달리 빛에 의해 기전력이 생기는 현상을 이용하여 전류를 발생시킴으로써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X

40. 윗글의 'P-N 접합 소자'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 ① 흡수하는 빛의 파장 대역이 넓을수록 더 많은 전자-양공 쌍이 생성된다. ○
- ② 퍼텐셜 장벽이 형성되기 전에는 N형의 전자가 접합면 너머로 이동할 수 있다. ○
- ③ 일정치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빛이 흡수되면 접합면 주위에 형성된 전기장이 사라진다. X
- ④ P형에서 생성된 전자가 접합면 너머의 N형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전기 에너지가 생산될 수 없다. ○
- ⑤ 두 반도체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자를 들뜬상태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빛을 흡수해야 한다. ○

41. 윗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㉔

<보 기>

특정 반도체 소재로 P-N 접합 소자를 만든 태양 전지의 실제 성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는 필 팩터이다. 필 팩터는 표준 조건에서 태양 전지가 생산하는 최대 전기 에너지를 측정하여 이 값을 개방 전압과 단락 전류의 곱으로 나눈 값이다. 표준 조건에서 개방 전압과 단락 전류를 각각 측정하여 서로 곱한 값은 해당 태양 전지가 생산할 수 있는 이론상 최대 전기 에너지로, 소자의 밴드 갭 에너지에 의해 결정되며 밴드 갭 에너지가 1.4eV인 경우에 최댓값을 가진다. 이때 개방 전압은 밴드 갭 에너지에 비례하고 단락 전류는 밴드 갭 에너지에 반비례한다.

- ① 표준 조건에서 측정된 태양 전지의 필 팩터는 언제나 1보다 작은 값이겠군. ○ *→ 저에너지에서 이상 최대치의 효율 값은 높이지 않고 낮은 값이 많다*
  - ② 표준 조건에서 실리콘 계열의 태양 전지의 필 팩터가 0.8로 측정되었다면, 이 전지의 에너지 변환 효율은 약 24%이겠군. ○
  - ③ 표준 조건에서, 실리콘 계열의 태양 전지의 개방 전압은 밴드 갭 에너지가 1.4eV인 태양 전지의 개방 전압보다 낮게 측정되겠군. ○
  - ④ 표준 조건에서, 실리콘 계열의 태양 전지의 필 팩터가 밴드 갭 에너지가 1.4eV인 태양 전지의 필 팩터보다 더 높게 측정되었다면, 전자가 후자보다 더 넓은 파장 대역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이겠군. X *→ 전자가 더 넓은 파장 대역의 빛을 흡수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하나의 요인일 뿐 반드시 전지의 효율을 이끈다는 것은 아니다*
  - ⑤ 표준 조건에서, 실리콘 계열의 태양 전지의 필 팩터와 밴드 갭 에너지가 1.4eV인 태양 전지의 필 팩터가 동일하게 측정되었다면, 전자에서 실제로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가 후자의 경우보다 더 작겠군. ○ *→ 전자의 경우가 0.8보다 더 높으므로 필 팩터가 같다면 그럴 것이다.*
- ②: 이상 실리콘 계열의 에너지 변환 효율 최대치는 30%이므로 0.3으로 계산하면, 초기 곱셈에 따라 필팩터가 0.8인 경우 0.3x0.8=0.24로 계산하면 효율은 24%이다.  
 ③: 개방 전압은 밴드 갭 에너지에 비례함. 실리콘 계열의 밴드 갭 에너지는 1.1eV임.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내포(內包)하게                      ㉡ ㉡: 칭(稱)한다
- ㉢ ㉢: 확대(擴大)되어                    ㉣ ㉣: 용이(容易)한
- ㉤ ㉤: 향상(向上)시키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30대 후반의 사진사인 정원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다림을 좋아하지만, 다림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S#69. 정원의 집(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아버지. 정원이 안방에 들어선다.  
 정원: 아버지 안 주무세요?  
 아버지: ㉠야……. 이거 정말 어렵구나.  
 정원: 왜요?

아버지: 조금 있다가 「콰이강의 다리」를 하는데 그걸 예약 녹화해야 내가 잠을 자지.

정원: 그거 보려고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버지: 니 어미하고 봤던 영화잖아.

정원: (웃으며) 제가 해 드릴게요.

아버지에게 리모컨을 넘겨받은 정원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예약 녹화를 한다. 아버지는 정원이 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정원: 이제 아버지가 한번 해 보세요.

아버지는 순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틀린다. 정원이 가르쳐 주고 아버지는 반복해서 따라 하지만 제대로 작동을 시키지 못한다. 백지에다 비디오 작동법을 크게 그리는 정원. 아버지 그 종이를 들고 비디오를 작동시켜 본다. 이번엔 성공이다.

[중략 줄거리] 병세가 악화된 정원은 갑자기 입원하고 이로 인해 며칠간 사진관을 열지 못한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다림은 정원에 쓴 편지를 사진관 문틈에 밀어 넣고 정원을 기다린다.

S#103. 사진관 앞(밤)

사진관 앞에 서 있는 다림. 한참을 서 있는 다림. 다림은 발길을 돌려 한쪽 길로 사라진다. 다림이 사라진 사진관 전경. 잠시 후 갑자기 다림이 다시 들어와 유리창에 무언가를 던진다. 깨지는 사진관 유리창. 멍한 표정으로 깨진 유리창 안을 바라보는 다림.

S#104. 도로의 차 안(오전)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는 정원. 그는 고개를 돌려 차창 밖의 풍경을 보고 있다. 운전석에는 정숙의 남편인 석희가 있고 그 옆에는 정원의 여동생 정숙이가 있다. 정원은 동네 입구에 들어서자 길 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본다.

S#105. 사진관 앞(낮)

정원 사진관 앞으로 걸어온다. 외출 중이라는 팻말을 물끄러미 보고 나서 사진관 문을 여는 정원.

S#106. 사진관 안(낮)

소파에 앉아 다림의 편지를 읽는 정원. 정원은 간간이 미소 지으며 다림의 편지를 읽는다. 정원은 편지를 다 읽고 곱게 접어 봉투 속에 넣는다. 편지를 바라보는 정원. 사진관 밖으로 나가는 정원.

S#107. 구청 앞(낮)

멀리 스쿠터를 타고 구청으로 들어가는 정원이 보인다. 정원은 구청에서 나오는 주차 단속반원들을 보자 뭐라고 물어본다.

S#108. 찻집(낮)

거리가 보이는 찻집. 정원 창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유리창에 반사된 정원의 얼굴. 얼굴 너머로 멀리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다림이 보인다. 정원 손가락을 가만히 유리창에 갖다 대 본다. ㉡다림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손가락.

S#109. 암실

현상액 속에 인화지를 넣는 정원. 서서히 사진의 형체가 드러나면서 다림의 얼굴이 보인다. 전에 정원이 찍어 준 다림의 증명사진이다. 현상액 속에서 웃고 있는 다림의 얼굴.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성취한다.”

저 자 이승모, 최상훈  
펴 낸 곳 한국교육평가인증  
전 화 02-3401-8900  
홈페이지 [www.kydi.co.kr](http://www.kydi.co.kr)